의안번호	제 34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19년 12월 16일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의안 번호	342

제안연월일 : 2019년 12월 16일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 이유**

○ 우리도에는 전국 2, 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는데 두 댐의 저수량은 42.4억 톤으로 이는 수도권 용수 사용량 511일 분량에 해당되는 많은 양 임에도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약 43.6%이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댐 주변 및 상류 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손실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용수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울 경우 우리도의 경제적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임

○ 이에 환경부는 조속히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충북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업용수 배분시 댐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수계불균형을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함.

□ **붙 임 : 건의안**

□ **보낼곳 :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등**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충북은 공업용수도 배정량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가 어려울 지경에 처했습니다. 2021년 15만톤, 2023년 29만2천톤, 그리고 2025년이면 33만7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충북은 공업용수 부족에 대해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전국 2, 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고 두 댐의 저수량은 42.4억 톤으로 이는 수도권 용수 사용량 511일 분량에 해당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충주댐과 대청댐이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약 43.6%로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이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댐 주변 및 상류 지역은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손실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5천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용수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울 경우 우리도의 경제적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수계 불균형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환경부는 댐 용수배분 등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35년 계획 수립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행태는 현행 산업단지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도법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수량 산정방법만 고수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현재 상황을 외면해 버린 것으로 즉각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환경부는 조속히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충북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업용수 배분시 댐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수계불균형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 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